

광양미술협회장과 집행부는 시민 앞에 사과하고 자진 탈퇴하라

[성명서]광양 예술 발전 시민 연대의 입장을 발표

전남조은뉴스 dk5112@empal.com

광양미술협회의 문예진흥 보조금 부당사용 등을 주장하며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협회운영과 관련해 광양예술발전시민연대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협회장과 집행부는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여 시민 앞에 사과하고 자진 탈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광양 시민여러분 !

사)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광양시지부에는 7개의 협회가 있어 각 분야에서 예술적 역량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협회의 구성원이야말로 순수과 아름다움을 추구해나가면서 우리 광양을 문화예술의 도시로 꽃피워 나가야하는 선봉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양미술협회의 김모씨는 18년 동안 지부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협회를 독선과 투명하지 못한 재정을 집행하여 왔으며 순수예술을 망각, 사업 자금에만 혈안이 되어 그것을 쫓아 다니는 치졸함을 자행하여 왔기에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의 원성이 높아 투명하고 화합하는 민주적인 미술협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총정에서 오늘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김모씨는 회원 상호간에 화합하고 친목하여 협회를 이끌어가야 당연한데 자신과 뜻에 맞지 않는다 하여 회원을 교묘한 방법으로 탈퇴 시켜버리는 행위를 일삼는 등 협회를 독단으로 이끌면서 협회내의 불협화음의 소리가 높아왔다.

그리고 정관에 의거 한다는 핑계로 광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능력을 갖춘 예술인들을 배격, 순천미협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정작 현 광양미술협회 내에는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회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김모씨는 제정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전라남도과 광양시에 광양미술협회의 자료정보공개요청을 한바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본 결과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999년-2001년까지 광양시민예술대학을 설치한다는 목적 아래 전라남도 문예진흥기금을 지원 받아온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또 전라남도 문예진흥기금과 광양시 보조금을 받아 전시회를 하면서 광양시보조금으로 전시회를 하고 전라남도 문예진흥기금은 어떻게 쓰여 졌는지 알 수가 없다. 또 광양제철소의 찬조금은 어떻게 쓰여 졌는지 궁금할 뿐이다.

물론 전라남도에 결산보고 할 때 작품 운송비라는 명목으로 결산을 통과 하였지만 광양시의 결산서에 보면 운송비는 자부담으로 처리되어있다.

같은 회원도 전라남도 문예진흥기금을 받은 사실조차 모르는 회원이 있다. 자체 년 말 결산에도 이러한 사실의 기록은 없다.

실례로 2007년 10월20일-27일까지 열린 전라남도 문예진흥기금사업명: 제15회 배알도 바다 미술제(보조금3백만원), 광양시 보조사업명: 제15회 광양예술제(보조금4백만원), 도록명: 제13회 광양시민의 날 기념 섬진강에서 만난 사람들전은 동일한 전시회로 도비는 작품운송료, 시비는 도록제작비로 정산 되어있다. 실제 도록제작은 전문가에게 의뢰해본 결과 1백만원-1백50만원이면 제작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듯 도민과시민의 혈세를 광양미협이 전시회라는 미명아래 보조받아 전시회를 하면서 개인의 사욕을 채웠던 것이 거짓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난 2개월반 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본인은 물론 광양예총에 타협과 조율을 요청해왔다. 우리의 요구는 무시되어 왔고 그 요구는 원성으로 바뀌었다. 원성의 소리가 높아지자 김모씨는 여러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탈퇴까지 불사한다고 말을 하고 다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임시총회를 열어 지부장 직을 사임, 슬며시 자리를 내어놓더니 지역 예술인을 아우른다고 하면서 선별적으로 영입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듯 김모씨는 자기방어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졸렬한 방법과 정치적 술수를 일삼아 현 위치를 유지하려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허탈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은 우리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안아무인의 소치이며 예술인으로써 지켜야할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포기해버리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예술인의 자존심을 바닥에 실추시키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김모씨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요 구

1. 광양 미술협회 김모씨와 집행부는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여 시민 앞에 사과하고 자진 탈퇴하라.
2. 광양미술협회는 새로운 정관을 만들어 광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
3. 만일 앞의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 앞에 심판을 요구 할 것이며 시민으로서 권리를 찾아 나설 것을 천명한다.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는 우리의 심정은 제살을 도려 내는듯한 아픔을 느끼며 자기얼굴에 침을 뱉는 수치심도 느낀다. 그러나 굶었던 종기를 도려내고 새살이 차면 더욱 건강해진다는 확신을 가지며 지금은 조금 아프겠지만 먼 앞날 우리 광양미술협회의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008년 7월 2일

광 양 예 술 발 전 시 민 연 대

기사입력시간 : 2008년 07월02일 [14:42:00]